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5

2016 | Vol. 535

미에현 이세시마

Photo : Kazuhisa Ishikawa



한국 정부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 지원 구호물품 제공

이번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물자 지원 제의가 있었고, 양국 정부의 조정을 거쳐 4월 22일 오후 한국 군수송기(C-130) 2대가 서울공항을 출발,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 구마모토 공항에 도착하여, 한국 측이 준비한 햇반과 생수, 담요 등이 일본 측에 제공되었다. 이는 일한 관계의 관점에서도 뜻 깊은 일로서, 한국 정부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린다. 또한, 벳쇼 코로(別所浩郎) 주 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가 서울공항에서 한국정부 관계자에게 이번 지원에 대해 일본정부 및 일본국민을 대표해 심심한 사의를 표명한 후, 지원 물자를 실은 군수송기의 출발을 지켜보았다.

[사진제공 : 한국 외교부]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4월 22일, 12시경 발표)

- 우리 정부는 지난 4.14(목) 이후 규슈 지역에 연이어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일본에 10만불 상당의 구호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담요, 천막, 생수, 햇반 등 구호물품은 4.22(금) 오후 군수송기(C-130) 2대를 이용하여 구마모토 현지에 도착, 일본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시 우리 정부는 긴급구호대 120명을 파견하고 담요, 식량 등 구호물품을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18(월) 위로전을 통해 일본 국민과 정부에 대해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일한정상회담



Photo :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3월 31일 12시 45분경(현지 시간)부터 약20분간, 핵안보정상회의의 참석 차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한정상회담을 가진 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일본 측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 등, 한국 측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배석).

서두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행위에 대해, 일한 양국 정부가 긴밀히 공조할 수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일한·일한미의 안보협력을 다양한 형태로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인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가자고 하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한국도 같은 문제가 있으며,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공고한 자세를 확인하고, 계속 긴밀히 공조해 가기로 했다.

또, 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거듭 환영한다고 밝혔고, 두 정상은 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일한미 정상회의

3월 31일 10시 50분(현지 시간)부터 약 1시간, 핵안보정상회의의 참석 차,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컨벤션센터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과 일한미 정상회의를 가진 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일본 측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 등, 미국 측은 바이든 부장관 등, 한국 측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배석).

총론 일한미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지역 평화와 안정에 책임을 지닌 일한미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법의 지배와 규범에 따른 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세 정상은 북한·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세 정상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보 분야에서 일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일한미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갈 것을 확인했다. 3국의 외무·방위 당국 간에 구체적인 안보·방위 협력의 진전을 위해 실무자에게 지시하기로 했다. 또, 세 정상은 강력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 제2270호 채택에 따라, 각국의 독자적인 조치와 맞물려, 국제사회가 단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을 평가하고,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대응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었다.

글로벌 이슈 테러 대책과 중동 정세, 기후 변화, 바이든 부대통령의 암퇴치 운동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세 정상은 폭넓은 분야에서 일한미 3국의 공조,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역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일한미 3국이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Photo :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오카야마현 비젠시와 울산광역시 동구의 자매교류

비젠시 소개

오카야마현(岡山県) 동남쪽 끝에 있는 비젠시(備前市)는 효고현(兵庫県)과의 접경에 위치하며, 서부는 오카야마시(岡山市), 아카이와시(赤磐市), 와케정(和気町), 세토우치시(瀬戸内市), 북부는 미마사카시(美作市), 동부는 효고현 아코시(赤穂市), 가미고리정(上郡町), 사요정(佐用町)과 인접한 면적 258.24km²의 도시다.

시의 약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부는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에 면해 있고, 서부는 평야가 펼쳐지는 등 변화 무쌍한 지형이다.

또, 시의 서쪽에는 오카야마현 3대 하천 중 하나인 '요시이가와(吉井川)' 강이 흐르며 풍요로운 자연 환경에 둘러싸인 동시에, 자연 재해가 적고 온난한 기후를 겸비한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나라 시대에는 고대 산요도(山陽道)가 정비되어, 해상 교

통의 발달과 더불어 비젠국(備前国)과 하리마국(播磨国)의 교류 거점으로서 번영했으며, 근세에 들어 산요도의 역참마을과 이케다번(池田藩) 유래의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비젠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근대 이후, 내화물(耐火物)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육성한 결과, 비젠시는 공업도시로 크게 발전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천년의 역사가 있는 도자기 '비젠야키(備前焼)'와 에도 시대부터 배움의 정신을 전승하고 있는 일본유산에 등록된 '구 시즈타니학교(旧閑谷学校, 약300년 전에 지어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서민학교)' 등 전통 문화와 역사적 유산이 다수 남아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측면을 겸비한 지역이다.

비젠시와 울산광역시 동구의 교류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방어진에는 1905년부터 종전(終戰)까지 20년간 구 히나세정(日生町) 주민이 전성기에



는 100가구, 약500명이 이주했다. 특히 방어진에서 우호적인 생활을 했던 역사를 바탕으로 1992년 '방어진 귀향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1993년부터 1999년까지 7년동안 구히나세정 중학생 121명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이 지역 초중학생과 교류했다. 이런 가운데 제반 사정으로 2년간 한국 파견을 중단하고 있었지만, 2002년 초등학교 16명을 파

견하여 홈스테이와 교류회를 하는 등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4월 7일에는 동구문화원과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쌍방의 초등학교 상호교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5년 8월 9일 합병 후, 비젠시와 동구문화원이 '문화교류협정'을 계승한다는 확인 선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다.

비젠시 방문단, 한국 파견

2015년 예정하고 있던 비젠시 한국방문단 파견사업이, 한국 내 MERS(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영향을 고려해서 안타깝게 중지되었다.

2013년 이루어진 방문단 파견에는 13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현지를 방문하기 전에 4차례 사전 연수를 실시하여,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웠다. 울산광역시 동구에 도착 후 개최된 환영식에서는 학생들이 일본에서 연습했던 조세조나 소란부시(ソーラン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민요 중 하나)를 선보였다. 또 방문 기간 중에는 방어진 초등학교, 대왕





암 해안, 그리고 현대중공업 등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이 지역에서 홈스테이도 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며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파견단원으로부터 '이번에 홈스테이를 하고, 다른 나라의 친구도 생겨서 좋았다. 평소 할 수 없었던 일을 체험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며 즐거웠다. 호스트 패밀리와 헤어지는 게 슬펐다'는 감상이 있었다.

울산시 학생, 비젠시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2014년 실시된 한국방문단초청사업에서는 비젠야키 작가들로부터 비젠야키를 배워 제작했다. 각자 접시와 컵 등을 만들어서 잘 구워진 작품은 나중에 한국으로 우송되어 파견단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 또 2015년 4월 24일 일본 유산으로 인정된 구 시스타니학교의 국보인 강당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논어를 낭송했다.

한국 학생들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바비큐, 불꽃 놀이, 게임 등을 하며 더욱 교류를 돈독히 했다.

교류의 확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지구에서는 양국 문화 교류 및 예술공동체 공간을 갖춘 현대식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기존의 일본식 가옥 리뉴얼과 방어진항의 역사적, 관광적 가치를 담은 지도 만들기 등 노화관광시설 재생사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상호방문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파견·초청 각각 100명이 넘는다. 앞으로도 파견·초청사업을 지속해서 교류를 돈독히 하고자 한다.

나아가 2015년 7월 24일에는 비젠시와 울산광역시 동구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기존의 학생 상호교류와 더불어 경제, 교육,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문의 오카야마현 비젠시청 시민협동과

e-mail: bzkyoudou@city.bizen.lg.jp

URL: <http://www.city.bizen.okayama.jp/>

TEL +81-869-64-1806 FAX +81-869-64-3845

(집필: 비젠시, 협력: CLAIR, Seoul)



규슈 올레와 개성 강한 온천을 즐기는 오이타현

오이타현 소개에 앞서, 지난 4월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오이타현에서 보내온 감사의 메시지를 소개한다.

【오이타현에서 드리는 말씀】 4월 14일 이후,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 피해자에게 한국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온천지인 벳푸, 유후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많은 시설이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변함없이 여러분께서 찾아주셨을 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 제일의 '온천 현'인 오이타

오이타현의 자량은 뭐니 뭐니 해도 온천이다. 그 중 대표는 풍부한 용출량과 뛰어난 수질의 벳푸 온천이다. '벳부 핫토(別府八湯, 벳푸(別府)·간나와(鉄輪)·묘반(明礬)·간카이(観海寺)·가메가와(亀川)·시바세키(柴石)·호리타(堀田)·하마와키(浜脇))'라 불리는 온천향(温泉郷)으로 나뉘어지며, 각기 다른 온치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뜨거운 물과 수증기를 뿜어내는 지옥순례 등 대지의 에너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다음은 한가로운 전원 풍경이 남아있고, 풍요로운 문화의 향기가 감도는 유후인(由布院) 온천이다. 신사와 불각, 긴린코(金鱗湖) 호수 등의 명소를 백마가 끄는 쓰지마차(辻馬車)를 타고 돌아보



는 것도 인기다.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많아 예술을 느끼며 산책하는 것도 즐겁다.

그 외에도 수면에 비치는 야카타부네(屋形船, 지붕 있는 놀잇배)의 불빛과 우카이부네(鵜飼船, 가마우지로 은어 낚시를 하는 전통 배)의 화롯불이 아름다운 히타(日田)온천, 구스가와(玖珠川) 강의 여울 물소리도 기분 좋은 아мага세(天ヶ瀬)온천, 역동적인 자연 경관에 둘러싸인 호센지(宝泉寺) 온천과 스지유(筋湯) 온천, 등산가에게 사랑 받는 일본 최고의 탄산천인 나가유(長湯) 온천 등 현 내 각지에서 온천이 솟아나는 다양한 수질의 오이타현은 ‘온천 현’이라고도 불린다.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온천은, 여유롭게 온천 욕을 즐길 뿐 아니라 사람의 교류가 오가는 공동탕, 수증기와 유노하나고야(湯の花小屋, 삼각형 초가지붕의 유허재배지) 등의 경관, 지옥 찜요리(地獄蒸料理, 온천열기로 해산물과 야채를 익힌 요리)와 온천수 음용 같은 먹거리 등 지역의 생활 속에 온천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사계절 제철 음식

온천과 함께 오이타현의 매력을 더하는 것 중 하나가 음식이다. 오이타현과 에히메현 사이의 호요해협(豊予海峡)에서 잡히는 세키아지(関アジ, 전갱이)와 세키사바(関さば, 고등어), 복어, 오이타 분고규(豊後牛, 오이타현 브랜드 흑소) 등 고급 식재료를 비롯하여, 가보스(유자의 일종), 표고버섯 등 질 좋은 제철 식재료가 풍부하다. 이러한 식재료를 활용한 세련된 요리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다. 또 닭튀김 요리인 가라야게(から揚げ)와 도리텐(とり天), 류큐(りゅうきゅう, 회를 간장 양념에 절인 것), 고마다시(ごま



등도 꼭 드셔보시길 추천한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자연

풍요로운 식재료는 해발 0미터부터 규슈의 지붕으로 불리는 구주 연산(くじゅう連山)의 1700미터가 넘는 산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강, 산으로 변화하는 다채로운 자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풍경이겠지만, 바다와 섬, 산, 고원과 계곡, 폭포, 종유동 등 복잡한 지형과 웅대한 자연이 빚어내는 경관과 더불어, 신록과 단풍, 계절마다 들과 산을 물들이는 꽃 등 이 정도로 모두 갖춘 곳은 없다고 한다.

오이타현에는 이처럼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3개의 올레 코스가 있다. 웅대한 유후다케(由布岳) 산과 쓰루미다케(鶴見岳) 산 등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벳푸(別府) 코스’, 아름다운 농촌 풍경과 오카조시(岡城趾, 오카산 성터), 성하마을 등의 역사가 어우러진 ‘오쿠분고(奥豊後) 코스’, 세계 최장의 보도현수교인 ‘고코노에 “유메” 오쓰리바시(九重 “夢”大吊橋)’부터 아소 구주국립공원(阿蘇くじゅう国立公園) 내의 고원과 계곡에 이르는 ‘고코노에 · 야마나미 코스(九重・やまなみコース)’를 일본 국





내외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어느 코스든 산책을 즐긴 후, 온천에서 땀을 흘리는 것도 오이타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사치라 할 수 있다.

깊은 역사와 전통 문화

다채로운 자연 속에서 살며 오늘날까지 풍부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구축해 왔다. 구니사키 반도(国東半島)는 일본 전역에 4만 곳 남짓 있는 하치만구(八幡宮)의 총 본궁인 우사 신궁(宇佐神宮)과 관련이 깊으며, 로쿠고만잔(六郷満山)이라 불리는 불교 문화가 꽃 핀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일본의 국보인 후키지(富貴寺) 절과 후타고지(兩子寺) 절 등 수많은 사원이 건립되어, 인왕상(仁王像)과 구니

사키탃(国東塔) 같은 석조문화재와 함께 상당수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 오이타현은 일본에서도 일찍이 천주교와 서양 문화가 번성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그 중 다케타시(竹田市)에는 응회암을 파내 만든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천주교 동굴 예배당과 나가사키(長崎)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산티아고의 종이 남아 있어 도처에서 낭만이 느껴진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역사를 지닌 오이타현에는 가구라(神楽, 신에게 바치는 춤과 음악)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경 여럿이 노래에 맞춰 추는 춤) 등의 전통 예술과 기온 마쓰리(祇園祭) 등의 축제, 전통 행사도 많이 전해지고 있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즐거움이다.

높은 석축의 오카조시에 만개한 벚꽃과 만나는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다케타(竹田) 성하마을의 봄. 조용한 세토우치(瀬戸内)에 불빛이 흔들리고, 기쓰네 오도리(キツネ踊り, 여우 춤)로 북적거리는 히메시마(姫島)의 여름. 신소바(新そば, 가을 메밀)를 먹으며 바라보는 기암 수봉과 단풍이 자아내는 야마케이(耶馬溪) 계곡의 가을. 문전 석탑과 인왕상에 소리 없이 내린 눈이 쌓인 구니사키의 겨울. 계절마다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온천 현 오이타’는 올 때마다 새로운 발견과 감동이 있다.

(집필: 오이타현, 협력: CLAIR, Seoul)



하카타셉템버



강남의 번잡한 대로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주택가 골목의 성당 앞에 자리한 하카타셉템버(博多September). IT 기업 최고경영자의 자리를 과감히 접고, 요리를 선택한 서영민 셰프가 경영하는 일본 요리 전문점이다. 일본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 감명 받았던 음식 등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평소 우리가 잊고 지내던 따뜻한 사람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카타셉템버’라는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 어떻게 짓게 되었나요.

후쿠오카에 있는 3곳의 가게에서 연수를 했는데, 가게 주인들로부터 후쿠오카(福岡)시가 생긴 후에도 본전통 상인은 자신들은 후쿠오카 사람이 아니라 하카타 사람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단어를 꼭 쓰고 싶었어요. 여기에 일본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도 9월, 일본 연수도 9월, 생일까지 9월이라 셉템버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카타셉템버’라 짓게 되었습니다.

나카무라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일본 요리를 배우고, 일본 연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리하는 분들 가운데, 전공과는 상관없이 프랑스나 이

탈리아 등으로 유학 갔다가 요리를 시작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IT 관련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사실 요리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미식이 아버님과 요리 솜씨가 뛰어난 어머니 덕분에 좋은 식재료를 쓴 맛있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장적인 집안이라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거나, 음식 만드는 걸 무척 반대하셔서, 해외출장 길에 사 모은 책도 보면서 취미로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회사근처 이탈리아 요리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야간 초급반 강의까지 맡아 진행하면서 책임감 있게 요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선 해체나 손질 방법 등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나카무라 아카데미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 과정



1기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예전부터 '50대가 되면 은퇴해서 2년정도 안식년을 갖고 요리를 배우겠다'고 말해왔는데,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긴 했지만 계획대로 45살에 회사를 정리하고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사실, 일본에 간 이유는 평생 미련을 갖고 후회하기 보다, 이 길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1년을 잘 버텼고, 이 때 생활하며 느낀 문화나 정서 등 일본의 좋은 점을 한국에 전하고 싶어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명 받았던 음식을 보다 많은 분들이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메뉴를 달리해서 점심에는 일본식가정요리를, 저녁에는 가이세키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키즈케(先付け)

성계알을 올린 수제 두부와 죽순 소스

핫슨(八寸)

- 호지차에 삶은 해삼과 성실말 초절임
- 산초 소스로 맛을 들인 오징어와 죽순 무침
- 백골뱅이와 유채 다시 절임
- 죽순을 넣은 수제어묵튀김
- 송어 어란과 무 샐러드
- 소금에 절인 벚꽃잎에 말은 도미 초밥

히야시바치(冷やし鉢)

쭈꾸미와 죽순, 토마토, 당근, 단호박, 돌미나리, 도미알 데침



일본 연수를 하면서 혹은 개업하고 나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보람이라면 우리와 같은 컨셉트의 가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부심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법, 서빙하는 법을 비롯해서, 하카타셋템버라는 이름으로 사계를 수입해서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우리가 처음일 겁니다. 어려웠던 점이라면 초창기에 예약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지, 예약하고도 오지 않거나 당일 취소하는 일이 많아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70~80%를 당일 준비하는데, 전부 버려야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본요리와 한국요리는 조리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령, 일본에서는 죽순 삶을 때 냄새 제거를 위해 누카(소금과 고추가루 등을 넣어 절인 쌀겨)를 넣는데,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예전에 일했던 치즈카(千束)라는 누카전문점 할머니께 부탁해서 받아오곤 합니다. 음식을 담을 적당한 그릇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요.

일본요리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일본요리의 화려함에 끌렸을 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본에 살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 생산자에 보내는 존경심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쓰는 점이 매우 신선했고, 철저한 직업의식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산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간자로서, 최선을 다해 좋은 음식을 만들어 손님께 대접한다는 사명감, 이런 것들에서 종교적인 느낌까지 받았습시다. 외면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이런 마음이 일본요리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또 한국 분들은 일본요리하면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고, 새로운 조리법에, 칼로리도 낮은 건강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플레이팅은 물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대접받으며 먹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본요리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게를 더 키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저희 가게에서 작은 캘리그래프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토시마에 사는 사쓰키 하쓰시마(梶月初島)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서 작게라도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해서 전시장을 알아보러 왔었는데 그리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하자고 했죠.

1,2층 복도 등에 1주일정도 작품을 전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파티를 열 생각인데, 사전티케팅을 통해 오신 분들께 캘리그래프도 써주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작가에게 보내는 리브레터

최근, 일본 문학이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면서 독자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가운데, 번역가들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제20회 노마문예번역상(野間文芸翻訳賞)을 수상한 권영주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문학과 번역의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와정을 하셨는데,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학원 시절, 친구의 권유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달 정도 문법 등을 배웠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만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죠. 일본문학 번역을 직업으로 삼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온다 리쿠 씨의 작품을 만나면서 이런 책을 소개할 수 있다면 번역도 직업으로 즐거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번역이라는 것은 외국어도 물론 능통해야겠지만, 모국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국어 능력도 묻게 되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번역은 단순히 ‘말’을 ‘말’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저자가 전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작업이라 항상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번역은



ソウル大学外交学科をご卒業され、同大学英文学修士へと進まれておりますが、日本語の勉強を始めたきっかけは何だったのでしょうか。

大学院の頃、友達の誘いで日本語の勉強を始めたのがきっかけになったと記憶しています。一か月程度、文法などを学びましたが、なんとなく私だけが勉強を続けて今に至っています。日本文学の翻訳を仕事にするとは思ってもみませんでしたが、恩田陸さんの作品に出会って、こういう本を紹介できれば翻訳も仕事として楽し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

翻訳という仕事は、外国語に精通することはもちろんですが、母国語でどのように表現するのか、母国語の能力も問われる職業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お仕事をされていて、どのような点が難しいと感じられますか。

翻訳は単純に「言葉」を「言葉」に変える作業ではなく、書いた人が伝えたい言葉を韓国語で表現する作業であるため、いつもどのように伝えればいいのかを考えています。また、翻訳は

어떤 의미에서는 타협이 아닐까 싶을 때도 있어요. 출판사나 편집자는 대체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기를 바라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원작을 되도록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속으로 항상 갈등이 있어요. 갈등과 타협의 연속이죠. 이런 가운데, 역자인 저라도 작가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말하자면 ‘작가의 챔피언’이 되어 작가의 생각과 말을 가능한 그대로 전달하도록 노력하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너무 비슷해서 반대로 번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영어 번역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영어와 일본어 번역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영어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영어가 조금 자유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많이 달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가의 말을 나름대로 전달하기 위해 표현을 조금 바꿀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는 한국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직역해 버린다고 할지, 원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번역의 경우 이런 유혹에 특히 주의해야 한답니다.

지난 노마문예번역상 수상식에서 ‘번역은 작가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를 쓰는 작업이라는 말에 동감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역시 작품에 애정이 없으면 번역하기 어려운가요.

못할 건 없지만, 작품에 애정이 있는 편이 자신에게도 행복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요. 작가는 역자의 존재를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나마 ‘저, 당신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좋은 형태로 독자에게 전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번역은 하나의 러브레터일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일방적인 작사랑이지만요.

ある意味では妥協ではないかと思う時もあります。出版社や編集者は、読者が理解しやすいように翻訳することを求める場合がありますが、私個人としては、原作をできるだけありのまま伝えたいと気持ちがどうしてもありますので、自分の中でいつも葛藤しています。葛藤と妥協の連続ですね。そのような中で、訳者の私だけでも作家のことを一番に思いながら、いわば「作家のチャンピオン」になって、その作家の考えや言葉を可能な限り、そのまま伝えるように気をつけながら翻訳しています。

日本語と韓国語は漢字語などよく似ていて、逆に翻訳する時、難しい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が、英語の翻訳と比べて如何でしょうか。

英語と日本語の翻訳は違う気がします。現在、英語の翻訳作業をしています。ある意味、英語の方が少し自由度が高いかも知れません。英語は韓国語とかなり違い、そのまま訳することは不可能なので、作家の話を私なりに伝えるため、少し言葉を変える時もあります。しかし、日本語は韓国語と似ているので、気をつけないと直訳してしまうというか、原文の表現をそのまま使いたくなることがあるんですね。ですので、日本語の翻訳の場合、特に注意し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

以前、野間文芸翻訳賞受賞式において、「翻訳は作家にラブレターを書くようなものという言葉に同感である」とおっしゃったと記憶しておりますが、やはりその作品に愛情をもたなければ翻訳することは難しいのでしょうか。

できなくはないですが、作品に愛情があったほうが自分にとっても幸せな作業にな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作家は訳者の存在をあまり認識してい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陰ながら「私、あなたの話が好きです。あなたの話をよりいい形にして読者に伝えるよう、私なりに努力したいです」という気持ちでやっているのです。その意味で翻訳はひとつのラブレターかもしれないですね。かなり一方的な片思いなんです。

今まで多くの本を翻訳していると思いますが、日本の好きな作家や記憶に残る場所がありますか。

今回、恩田陸さんの「三月は深き紅の淵」で野間文芸翻訳賞を受賞しましたが、彼女をはじめとして、小川洋子さん、



지금까지 많은 책을 번역하셨겠지만, 좋아하는 일본 작가나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나요.

이번에 온다 리쿠 씨의 ‘삼월의 붉은 구렁을’로 노마문에 번역상을 받았지만 그녀를 비롯해서 오가와 요코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인 환상·기담 소설을 쓰시는 쓰하라 야스미 씨, 그리고 요네자와 호노부 씨, 모리미 도미히코 씨 등을 좋아합니다. 또, 소설의 무대인 일본의 ‘오노미치’ ‘야쿠시마’ ‘나라’ 등에 갔는데, 나라의 넓은 하늘 밑에 서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특히 좋아해요.

앞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게 될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금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일본어 번역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나라면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생각하며 책을 읽기 바란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일수록 아무래도 번역이 빨리 늘거든요. 꼭 이런 의식을 갖고 책을 읽어 보세요.

個人的に好きなジャンルである幻想・綺談小説を書かれる津原泰水さん,そして米澤穂信さん,森見登美彦さんなどが好きです。また,日本には小説の舞台である「尾道」「屋久島」「奈良」などを訪れていますが,奈良はその広い空の下に立つと心が落ち着いて本当にいいところです。

今から日本語を勉強される人にアドバイスやコツ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

今,ハンギョレ·教育文化センターで日本語の翻訳を教えています,そこで「私ならこの話をどのように訳すればいいのかを考えながら本を読んでほしい」という話をよくしています.そういう形で本を読む人の方が翻訳の上達が早いんです.ぜひ,そのような意識をもって本を読んでみて下さい.

번역가 권영주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동대학원 영문학 전공
옮긴 책으로 ‘삼월의 붉은 구렁을’ ‘흑과 다의 환상’ ‘나의 미스터리한 일상’ ‘다다미 너그 반 세계일주’ ‘달려라 메로스’ ‘아시아 가의 전설’ ‘프랜차이즈 저택 사건’ ‘보틀넥’ ‘11 eleven’ ‘오자와 세이지 씨와 음악을 이야기하다’ ‘책에도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로큰롤’ 등이 있다.
2015년 일본 고단샤의 ‘제20회 노마문예번역상’ 수상

2016 코스프레 이벤트

한일 교류 코스프레 이벤트

5월 20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로 '한일 교류 코스프레 이벤트'를 개최한다. 코스프레는 일본에서 시작된 대중문화로, 해외의 젊은 세대를 시작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제교류에 참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코스프레는 새로운 문화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에는 일본의 유명 코스플레이어인 레이카, 이쓰키 아키라, 구로네코를 초청해 다양한 퍼포먼스와 간담회 및 기념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람무료.

일시 5월 20일(금) 19: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Negibose KONDO Inc

[예약]

기간 4월 21일(목)~5월 17일(화)

방법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입한 후 메일(jmic@so.mofa.go.jp)로 신청.

최소 시 반드시 연락할 것(예약 명단 확인 후, 선착순 무료 입장)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 110, 128)

게스트 소개

레이카(麗華)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장 코스플레이어. SNS 팔로워 수가 약 10만명에 달하며, 30개국 이상의 대형 이벤트에 게스트로 초청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Reika-315573555144954>

이쓰키 아키라(五木あきら)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미녀 코스플레이어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SNS 팔로워 수가 약 16만명에 달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도 인기가 높아 세계 각국의 대형 이벤트에 게스트로 초청되고 있다.

https://twitter.com/itsuki_akira

구로네코(くろねこ)

일본의 유명 코스플레이어 겸 가수로, 이쓰키 아키라와 듀엣으로 소니뮤직에서 메이저 데뷔했다. SNS 팔로워 수는 약 6만 5천명이며 한국의 유명한 코스플레이어 사이에서도 수 천명의 팔로워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현재,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태국, 대만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초청 받아 게스트로 참석하고 있다.

https://twitter.com/kuroneko_cos



레이카



이쓰키 아키라

코스프레 컬렉션 010 IN SEOUL

5월 21일 신촌 연세로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코스플레이어의 교류를 비롯해서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또, 한국 코스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프레 콘테스트'도 진행되며, 우승자는 'TOKYO GAME SHOW'에 공식 게스트로 초청될 예정이다.

일시 5월 21일(토) 11:00~

장소 신촌 연세로

주최 Negibose KONDO Inc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서대문구

협찬 YooF, 야코샵

참가비 10,000원(코스플레이어 및 사진촬영자. 단, 일반 관람자는 무료)

문의 coscore07@gmail.com

http://twitter.com/KONDO_negibose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 (내선 110, 128)

서대문구 02-330-1649



구로네코

일본국제교류기금 순회전

사랑과 기원의 표현, 일본인형전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순회전시회 '일본인형전' 서울전이 오는 5월 11일(수)부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일본인형의 한국전시회는 2000년, 2003년, 2009년에 이어 네 번째로 세 차례의 한국 순회전시회에 3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새로운 작품들이 대거 포함된 일본 최고의 인형작가, 장인(匠人)들이 만든 명품 인형들을 전시한다. 전시되는 14개 카테고리 72점의 인형들은 작가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담긴 작품들로,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정교함이 있는가 하면, 과감한 생략기법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만드는 귀엽고 앙증맞은 인형도 있어 남녀노소 누구라도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무료관람.

서울전시

일시 5월 11일(수)~27일(금) 10:00~17:30(토, 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문의 02-765-3011(내선120, 123) <http://www.kr.emb-japan.go.jp>



일본의 인형 소개



1



2



3

- 1 **히나인형** 3월 3일을 히나마쓰리(雛祭り)라 부르며 딸아이의 행복을 기원하며 히나인형을 장식한다.
- 2 **오월인형** 5월 5일을 '단오절구'라 하며, 용맹스런 무기(武具)의 미니어처와 무사인형 등을 장식하여 남자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한다.
- 3 **현대공예작가의 창작인형** 일본에서 인형은 미술공예의 일부로서 높이 평가되며, 많은 공예작가가 기량을 겨루고 있다.
- 4 **분라쿠인형, 가부키인형** 일본의 전통예술로 유명한 분라쿠(文樂)와 가부키(歌舞伎) 중에서 특히 널리 알려진 인물을 인형으로 만들었다.
- 5 **교인형** 전통의 고장 교토(京都)에서 만들어지는 인형을 교인형(京人形)이라 한다.
- 6 **오야마인형** 일본의 화려한 전통의상과 머리모양 등으로 일본 여성의 여러 가지 풍속을 표현한 인형을 오야마인형(おやま人形)이라 한다.
- 7 **이치마쓰인형** 이치마쓰인형(市松人形)은 일본 어린이의 모습을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하고 있다.
- 8 **고케시인형** 고케시(こけし)란 에도시대 말기부터 도호쿠(東北)지방의 온천지에서 토산품으로 팔리던 공예품으로 물레를 돌려서 깎아 만드는 목제 인형완구를 말한다.



4



5



6



7



8

제10회 국제만화상

일본 만화가들과의 교류 및 출판사 방문 기회

외무성과 국제교류기금은 '제10회 국제만화상'을 개최한다. 해외에서 만화문화 보급과 만화를 통한 국제문화교류에 공헌하고 있는 만화작가를 널리 알리고 치하할 목적으로 2007년 5월 창설된 상이다.

응모작품 중, 최우수 작품에 '국제만화상 최우수상'이, 그 밖에 우수한 작품에 '국제만화상 우수상' 이 각각 수여된다. 이들 수상자는 국제교류기금의 초청으로 수상식 일정에 맞춰 일본에 방문하여 일본 만화가와의 의견교환 및 출판사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event/event_20160422.html)에서 확인.

응모기간 4월 1일(금)~6월 17일(금)(필착)

제출처 아래의 ① 또는 ②에 제출한다.

①(우)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②[사서함] 100-0006 東京都千代田区有楽町1-10-1 有楽町ビルB1 MBE3351

BE108 「第10回国際漫画賞実行委員会」(직접 제출은 불가)

결과발표 2016년 말 ~ 2017년 1월 경

시상식 2017년 2월경(예정) 도쿄.

문의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 110)

국제만화상 홈페이지 <http://www.manga-award.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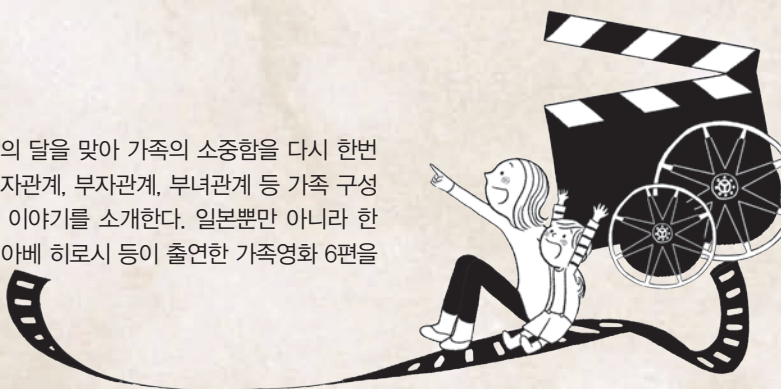


5월의 일본영화상영회

가족 영화 특집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따뜻한 가족영화를 마련했다. 모자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 등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과 갈등을 여러 형태로 풀어낸 이야기를 소개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오다기리 조, 아베 히로시 등이 출연한 가족영화 6편을 상영한다.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시간 14:30(입장 14:00부터)



도쿄타워:엄마와 나, 때때로 아버지

東京タワー〜オカンとボクと、時々、オトン〜

일시 5월 3일(화), 19일(목)

감독 마쓰오카 조지, 니시타니 히로시

출연 오다기리 조, 기키 기린, 마쓰 다카코, 고바야시 가오루

타미오의 행복

たみおのしあわせ

일시 5월 12일(목), 27일(금)

감독 이와마쓰 료

출연 오다기리 조, 아소 구미코, 하라다 요시오

걸어도 걸어도

歩いてても歩いてても

일시 5월 4일(수), 24일(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아베 히로시, 나쓰카와 유이, 기키 기린

인스턴트 늑

インスタント沼

일시 5월 16일(월), 30일(월)

감독 미키 사토시

출연 아소 구미코, 가자마 모리오, 가세 료, 마쓰자카 게이코

올웨이즈 3번가의 석양

ALWAYS 三丁目の夕日

일시 5월 6일(금), 26일(목)

감독 아마자키 다카시

출연 요시오카 히데타카, 쓰쓰미 신이치, 고유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そして父になる

일시 5월 17일(화), 31일(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후쿠야마 마사하루, 오노 마치코, 마키 요코

제16회 고교생 일본어말하기대회 개최(영남지역)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는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제16회 고교생 일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영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말하기 교육을 통한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일한 양국의 상호이해 및 교류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한다.

일시 6월 4일(토) 14:00~

장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관 소강당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후원 上対馬交隣協会, 영남일본어교육연구회,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협찬 JR九州高速船株式会社, 시사일본어사

문의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담당자 051-464-3554



제18회 전국 중고등학생 일본어학력경시대회

일본어를 학습하는 한국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하여 일본어 실력을 겨루는 콘테스트가 개최된다. 5월 21일(토) 1차 대회에서는 언어지식, 독해, 청해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6월 10일(금) 2차 대회에서는 1차 대회에서 선발된 21명(중등부 8명, 고등부 13명)이 5분간의 일본어 스피치를 통해 경연을 펼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10명에게는 4박 5일간의 일본연수 참가기회 및 상품권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참가무료.

일시 6월 10일(금) 10:30~14: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2차 대회)

주최 사단법인 한일협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도쿄도전수학교각종학교협회,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NPO법인 히로시마국제교류센터

문의 사단법인 한일협회 02-3452-5999 www.koja.or.kr

한일교류전 마주보기전 Ichiro Tsuruta & Bae Soo Young

일본의 그래픽디자이너 쓰루타 이치로 씨와 한국의 설치미술가인 배수영 씨의 일한교류전이 6월 13일부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쓰루타 이치로 씨는 일본 여성의 미인화로 유명한 그래픽디자이너로서 많은 광고와 포스터 등에 작품이 사용되고 있다. 배수영 씨는 오사카예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유학하고, 10여 년간 일본에서 활동한 설치미술가. 현재 한국과 일본 등에서 설치미술가 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입장무료.

일시 6월 13일(월)~24일(금)

주최 chent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문의 chent 02-515-6269 www.chent.co.kr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안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교토시 기타구에 있는 사라사 니시진(ささら西陣).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올 법한 당파풍(唐破風) 지붕의 카페. 80년 이상 된 이 고풍스런 건물은 1999년 까지 영업을 했던 목욕탕 후지모리탕(藤森湯)을 개조한 카페로 건물외관과 욕실 부분을 살려두고 카페로 다시 태어났다.



泉温森藤

*입구 지붕위에 당당히 새겨져 있는 사라사 니시진의 전신 후지모리 온천 (藤森温泉)

*둥글게 굴린 당파풍 지붕.

*온천 로고 형태로 디자인한 사라사 (ささら)라는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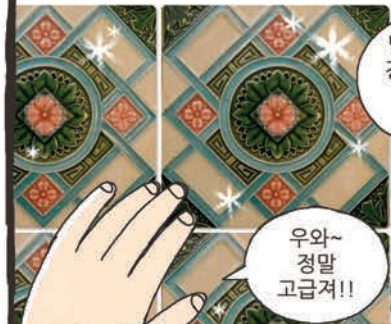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내뿜는 건 실내도 마찬가지. 격조형태 천장(格天井)은 물론 우아함으로 도배한 충천연색의 '마조리카 타일(マジョリカタイル)'. 확! 트인 목욕탕 그 자체였다.



벽면부터가 목욕탕!

특별출연 이 동네 유자인 슈퍼집 딸 토시코상.

실코드를 연상케 하는 마조리카 타일은 근대 영국의 장식타일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타일 표면에 부조(浮彫)효과를 취 입체감이 있고 붓으로 타일 하나하나 색을 입혔는데 이것을 마조리카 타일이라고 한다.



남탕과 여탕의 경계벽을 허문 대범한 카페네~!

우와~ 정말 고급져!!

여기 니시진(西陣)은 옛부터 고급 직조물인 '니시진오리(西陣織)'가 유명한데 당시 이 일대는 후나오카 온천(船岡温泉)을 비롯한 목욕탕 동네로 당시의 화려한 멋을 살린 마조리카 타일을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해~.



그런데, 모두가 포기한 음식도 가수로 만들어 주는 목욕탕의 환상적인 에코효과~



글쎄, 이 목욕탕 카페에서 매달에 한번 음악연주를 하는 뮤지션들이 있으니 이름하여 '자하트르테'.

'자하트르테'란 초콜렛 코팅이 되어있는 케익을 의미한다.

자하트르테는 2002년 교토 리쓰에이칸(京都立命館) 대학에서 결성된 어쿠스틱 트리오 뮤지션으로 기타와 아코디언, 첼로로 구성되어 있다. 집시 음악과 아이리시 등 유럽의 민족음악풍의 연주, 2004년에는 프랑스 최대 아코디언 페스티벌에 출전하여 찬사를 받기도 했다.



아~ 릴렉스~ 두 눈이 사르르 감겨진다~

자하트르테는 현재 교토의 사라사 니시진의 월례 공연을 비롯 카페 라이브를 거점으로 일본 전국 라이브 하우스와 미술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끔 깜짝놀랄 미술쇼도 선사해 준다.

년 100회 이상의 공연, 어느새 10장의 음반을 낸 중견 뮤지션! 일본의 TV 광고에도 음악이 쓰여 질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 그 유명세로 우리나라 '모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초청이 되기도 했다.



*6장의 정규앨범.

일상이 무료한가? 매월 3번째 월요일에 있는 사라사 니시진에서의 자하트르테의 월례 공연은 어떨인가? 관람요금은 요금이 자유로운 '캄파제(カンパ制)'.



'캄파제'란 후원금 형태로 활동 자금을 모금하는 것.